20210613-1348□-□□_□□□□□ 21. 6. 11. □□ 7:31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1년 6월 13일(주일) 제1348호

마리아행전 '일어나 함께 가자'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본당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로도 참여가능

지난해 마리아행전 참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2021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일어나 함께 가자'를 주제로 6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사흘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열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집회실황(유튜브)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홈페이지로도 참여 가능하다.

아직 참가신청을 하지 못한 성도들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등록은 마감되었고, 나머지 캠퍼스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마리아행전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6월 12일과 13일, 16일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만 할 수 있다. 현장신청만 받고, 선착순 마감한다. 온라인, 전화 접수, 대리신청, 당일 현장등록을 받지 않는다. 회비는 1만 원이다.

2021 마리아행전 '일어나 함께 가자'에서는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재훈 담임목사가 강의한다.

2021 마리아행전 '일어나 함께 가자'에 참석하는 여성들은 밝은색 상의, 짙은색 하의를 입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리아행전 행사 당일 자리 맡기를 할 수 없고, 좌석 QR코드를 반드시 스캔해야 한다.

문의: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6월 20일까지 '달려라! 퐁당'

2,681명, 운동 거리 및 작정 금액 후원예정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6월 11일 기준) 온누리교회 성도 2,681명이 기독 OTT '퐁당' 키즈콘텐츠 허입 및 제작을 후원하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다.

〈달려라! 퐁당 갤러리〉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은 참가자 1,200명, 후원금 1억, 총 16만km를 목표로 세웠는데 시작과 동시에 달성했다. 조성수 장로(김포공동체)는 매일 퇴근길에 자전거 50km 이상을 타려고 노력하고 있다. SNS에도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에 참가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증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가족들, 순원들과 함께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에 동참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다음세대에게 신앙도 전수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간증도 이어지고 있다.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 참가자들은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운동 거리와 약정금액을 계산해서 후원(계좌이체)하면 된다.

한편 CGNTV에서는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퐁당' 참가자들의 라이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메시지(010-6555-2243)로 전송하는 포토 이벤트와 '퐁당' 앱에서 '달려라 퐁당 클래스'를 듣고 참여하는 수강 후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02-796-2243

후원계좌: 573-910001-56 604
(재)온누리선교재단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앞으로의 10년도 하나님과 함께'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6월 5일(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홈커밍데이 행사(1부 기념예배, 2부 홈커밍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부 기념예배 기념영상 상영, 박종길 목사 메시지, 2부 홈커밍데이 이재훈 담임목사 축사, 레크리에이션, 토크쇼, 차세대 시상, 노규석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지난 10년과 같이 앞으로의 10년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동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김태완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담당)는 "앞으로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고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정현주 기자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 '기도세미나'

동경 및 야마가타 실행위원 참석

러브소나타 서울본부에서 지난 6월 10일(목) 동경 및 야마가타 지역 실행위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 '기도세미나'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 강의는 김하중 장로(전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가 했다.

이날 김하중 장로는 "하나님의 대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라며"사랑의 중보기도를 통해 세상 속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목사(야마토갈보리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라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일본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고, 센다 목사(케센그리스도교회)는 "성령의 감동과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더욱 회개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현주 기자

당회

일시: 6월 19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시무/명예 협동장로
안건: 임직자 규정 개정안
권사, 안수집사 임직선발규칙

특집_ 도전하는 청년 응원 프로젝트 4면 사역_ 미자립 교회를 도웁시다 5면 기획_ 세대와 교회 6면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2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역사의 방향성과 목적성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성경의 메타네러티브는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 세상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복적인 범죄의 역사이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반복적으로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개입의 절정을 이룬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으며 완성을 향해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종말론적 구속사의 역사관을 가진다. 만일 이런 역사관이 옳다면 인류의 역사 전체가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된다. 이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은 우리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암시한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결산해야 한다. 인간 역사의 마지막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그 심판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슬람은 무함마드 이전의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를 이슬람의 역사로 간주하며,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슬람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무함마드는 40세가 되던 610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언자로 지명되었다고 한다. 알라만을 섬기는 일신교를 주장하다 다신교를 숭상하던 메카 대상들에 쫓겨 622년 메디나로 도망을 하게 된다. 그들은 이 헤지라 사건을 이슬람의 원년으로 계산한다. 이후 메카로 가는 대상들을 습격해서 탈취한 부와 함께 이슬람으로의 개종자도 증가하면서 629년 결국 메카를 점령한다. 부와 무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부족들을 복속시키며, 이슬람을 급속히 확장시킨다. 이슬람의 뜻이 복종인 것처럼 이슬람의 역사는 알라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종교와 정치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한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이슬람 지도자들은 부패하였다. 그 권위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것조차 신성모독으로 취급하기에 그 미래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불교, 힌두교에서 유래한 뉴에이지는 윤회의 역사관을 가진다. 전생의 업보에 대한 평가에 따라 조금 더 나은 혹은 조금 더 못한 내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중생들의 문제이다. 이러한 윤회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 급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깨닫지 못하면 다음 생이나 그다음에 깨달을 때까지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또 이들은 우주적 진화를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의 신성도 진화해서 해탈을 이룰 날이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진다. 역사가 돌고 돌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에는 방향성이나 목적성이 없다. 그저 끝없는 영겁의 윤회를 견디는 일이 있을 뿐이다.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스트모던주의 같은 세속적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우연의 결과로 해석한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연한 대폭발로 인해 우주가 생성되었고, 우연에 의해 인간이 살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가진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졌으며, 우연에 의해 무생물에서 생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역사 또한 우연의 산물로써 방향성이나 목적성을 부여할 수 없다. 개인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무주의적 역사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진화를 통해 생물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이론을 자신의 삶에도 적용하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주장한다. 특히 막시즘이나 네오막시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를 권력자들의 자기합리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과거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의 권력을 합리화하고 연장하기 위해 역사 다시 쓰기를 반복한다.

기본적으로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띠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심으로 역사에 방향과 목적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의 개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같은 주변국들을 모두 사용해서 그 언약을 실행해 나가신다. 구약 전체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하나로 통일된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택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우리의 삶 역시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압제 속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무슬림의 삶이나 끝없는 윤회 속에서 깨달음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뉴에이지의 삶, 모든 것을 우연의 결과로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삶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명확한 목적을 향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각자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힘을 다해 응답해야 한다.

묵상: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창조세계관의 정의와 역할

창조세계관과 우리의 삶

세계관은 보통 '관점'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관점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창조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을 거부하는 다양한 사상 중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뿌리 깊게 우리와 다음세대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학인 진화론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혼란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상당수 있어서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강조하는 창조세계관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둘째, 창조를 강조함으로써 생각을 넘어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행위가 말씀으로 이뤄진 것처럼 생각은 말로 표현되고 표현된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창조세계관'은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시간, 공간, 물질, 생명,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첫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며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출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삶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나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물질세계의 과학적 질서는 물론 정신세계, 사회에서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질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당한다. 부부관계와 가정의 질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회질서 등이 모두 하나님의 질서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창조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를 지킴으로 따르는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보여야 한다.

셋째,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할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고, 학대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이 지금 시대에 보편화 되어있어 감사하다. 하지만 아직도 학대와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더 요구되고 있다.

넷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창조계획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창조목적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책임과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창조세계관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가정, 일터, 윤리와 도덕,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영역이다. 그리스도인들부터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질서를 지키며,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모범이 되어서 삶으로 창조신앙을 보여주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창조세계관을 가지면 삶의 목표가 위로 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무능력과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박국 1:1~11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과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으로 구성된 매우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때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따져 묻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질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자상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정죄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을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학습이 발달하려면 반드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신앙의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불신의 의문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의문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고자 하는 의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 불신자들을 만나면 불필요한 것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그분에게는 그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그 질문을 통과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존중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 비웃지 않고 존중하면 그 질문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질문하는 선지자 하박국

하박국과 비슷한 질문을 던진 인물이 구약의 욥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욥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온 징벌이라면 "왜 아무 죄가 없이,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했던 자신이 이런 징벌을 받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역사와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징벌하셔야 하는 불의와 왜곡된 폭력들을 왜 내버려 두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정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베일에 가려진 인물입니다. 하박국 선지서 외에는 다른 곳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문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 사람인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시기 이전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 땅에 폭력과 강포와 불의가 가득한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극심한 죄악의 상태에 처해있었던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호야김 시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은 '포옹하다', '끌어안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하박국은 포옹자이다. 우는 아이를 껴안아서 달래듯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기만 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그 백성을 끌어안고 포옹하고 위로하고 붙잡아 주었던 선지자다."

하박국 선지자는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악인들이 정의를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입니다. 불평 섞인 질문입니다. "악이 횡행하도록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버려 주십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 일부는 받아들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악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라는 대답은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대답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바벨론이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잔인하고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하신다는 대답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더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도록 하십니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바벨론도 그들의 악에 대해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악인들까지 공의롭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영혼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합 2:4).

여러분, 실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길은 죽는 길 같지만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인 것 같고, 죽음인 것 같고, 종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온전하게 구원하는 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영혼에게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살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전체 줄거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발견됩니다. 하박국은 이미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말씀은 어떠한 시대이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 불평, 항의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의 항의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염려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찬양되고, 항의와 불평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믿음과 경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하박국서에 나타난 이 변화를 장마다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1장 염려자, 2장 관찰자, 3장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동행하는 성도의 실망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2~4절).

하박국의 실망은 불신자의 실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성도의 실망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대하는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망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의 실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영혼이 실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행동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영혼의 실망입니다.

악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은 무감각해집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임박한 심판의 진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한 영혼이었기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세상을 심판했어야 한다는 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실망입니다. 또한 하박국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더 부르짖어야 합니까?"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실망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실망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 시대와 역사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끼는 실망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특별한 이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성된 민족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던 민족입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로도 율법이 있었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윤리적 지주를 부여받은 민족입니다. 그 율법을 내팽개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당시가 율법을 저버렸다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버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기준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14면에 계속〉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4

도전하는 청년 응원 프로젝트

“나는 십자가 만드는 사람입니다!”

국내 유일 십자가 쥬얼리 ‘비쥬 앤 로사’ 김보미 사장

경기불황, 좁은 취업문, 설상가상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가뜩이나 우울한 청년들의 취업전선에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다. ‘도전하는 청년 응원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 젊음과 패기로 끝까지 도전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응원하는 코너이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국내 유일 십자가 쥬얼리(Jewelry) 전문 브랜드 ‘비쥬 앤 로사’ 사장 김보미 자매(여호수아청년부)다. “십자가만 만들고 싶다”면서 해맑게 웃는 김보미 자매를 그녀의 작은 쇼룸(강동구 양재대로 136길 54 1층)에서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김보미 자매(여호수아청년부)가 ‘비쥬 앤 로사’ 쇼룸에서 활짝 웃고 있다.

자신의 브랜드를 설명하는 그녀의 눈빛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국내 최고 십자가 브랜드 회사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힐 때는 새빨간 루비처럼 열정이 가득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빛났다.

김보미 자매가 운영하는 ‘비쥬 앤 로사’ 매장은 아담하고 참 예뻤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영롱했다. 아기자기한 귀걸이부터 반지, 목걸이, 팔찌까지 여자라면 눈이 휘둥그레질 보석들이 가득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보미 자매의 거침없는 설명이 시작됐다.

“1부 다이아몬드 십자가 목걸이가 잘 나갑니다. 조그마한 다이아몬드와 십자가가 함께 있는 디자인인데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커플 십자가 목걸이는 십자가가 두 개입니다. 큰 십자가가 작은 십자가를 품 안에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분에 따라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고, 커플이 하나씩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문자 위에 십자가가 덧대어진 제품도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목걸이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귀걸이는요….”

본인이 만든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노력 없이는 절대 발산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거기서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김보미 자매는 보석관련 전공자가 아니다. 그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공대생이다. 우연한 기회에 보석을 접하고 사랑에 빠졌다.

“사촌오빠가 다이아몬드 도매업을 했는데 잠시 일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석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석은 알면 알수록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보석 세공, 감정,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이탈리아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에게 과외까지 받았는걸요?(웃음). 지금 생각해보면 다이아몬드가 주는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 정신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하고 멋있는 삶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라는 욕망이 제 안에 가득했었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보석 유통회사에 취직했다. 나름 업계에서 인지도도 있고, 탄탄한 회사였다. 그곳에서 MD(머천다이징), 디자인, 감정, 핸드메이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다.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다.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면서 교회와 신앙은 안중에도 없었다.

김보미 자매는 모태신앙인데 교회와 담을 쌓고 지냈다. 그녀에게 주말은 ‘집에서 쉬는 날’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순전히 제부(弟夫; 여동생 남편)의 권유 때문이다.

“제부가 온누리교회에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또래들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보라고요. 하루는 제부가 저를 양재 온누리교회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가버리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혼자 사랑홀 2층 좌석에 앉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예배만 가면 엄청 울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마리아행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의 도전

마리아행전 참가자들이 흰색 옷에 검은색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디자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치품인 보석에 십자가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모티브로 한 쥬얼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 결심이 국내 유일 십자가 쥬얼리 전문 브랜드 ‘비쥬 앤 로사’의 시작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십자가라는 제한적인 디자인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겠냐며 말리더라고요. 엄마와 거래처 사장님, 남자친구만 찬성했습니다. 엄마는 딸이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 해 봐라’ 식으로 찬성해주셨고, 거래처 사장님은 자신도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해외 백화점에도 입점했다면서 ‘하면 된다’고 격려해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정신적, 일적으로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국내 유일 십자가 쥬얼리 전문 브랜드 ‘비쥬 앤 로사’를 야심차게 론칭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첫 달 매출이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도 매출이 미비했다. 참담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다.

“컨설팅 회사의 상담을 받았는데 십자가로는 한계가 있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다른 디자인을 섞어서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매출이 나는 제품은 십자가 제품뿐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원로 목사들의 설교도 김보미 자매가 초심을 찾는데 큰 보탬이 됐다.

“하용조 목사님, 옥한흠 목사님 등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절 하나님만 믿고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긍정적인 영성, 원동력 등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신 차리자, 열심히 하자’고 다짐하고 초심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하지만 김보미 자매는 십자가만 만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마이너스 매출인 적도 많았고, 쇼룸을 오픈하자마자 코로나19가 터져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좁은 문이라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김보미 자매가 보석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포부를 밝혔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의 도전을 응원한다.

“국내 최고의 십자가 전문 쥬얼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오직 십자가, 특별한 십자가 쥬얼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제가 만든 십자가 브랜드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도 하형록 회장님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고용도 창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이 후원하고 싶습니다.”

문의: 네이버 검색 ‘비쥬앤로사’
010-2828-2735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5

미자립 교회를 도웁시다

“아이들에게 진짜 쉴만한 교회를…”

쉴만한교회 정수덕 전도사의 간절한 소망

경기도 구리시 어느 아파트 주차장 한편에 교회가 있다. 66㎡(2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다. 이 교회의 이름은 쉴만한교회다. 정수덕 전도사가 섬기고 있다. 정수덕 전도사는 2년 전 갑자기 남편을 잃었다. 설상가상 코로나19까지 터졌다. 그 엄청난 고통을 오직 십자가에 의지하며 견디고 또 견디고 있다. 쉴만한교회는 온누리교회 갈렙청년부가 ‘Acts29 무브먼트사역’으로 섬기는 교회이다. 갈렙청년부 소속 청년들이 철마다 쉴만한교회로 아웃리치를 가서 성경학교와 체험 학습, 선물 나눔 등으로 차세대를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쉴만한교회에 도와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정수덕 전도사가 간곡하게 차세대를 먼저 섬겨달라고 부탁했다. 정수덕 전도사의 하나뿐인 소망이 아이들에게 진짜 쉴만한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지난 어린이날에 갈렙청년부와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쉴만한교회 차세대 학생들.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87번길 27, 아차산 어울림 아파트’

이곳에 쉴만한교회가 있다. 취재를 위해 주소를 전달받고 무엇인가 어색함을 느꼈다. ‘왜 주소가 아파트에서 끝나지?’라고 생각했다. 가정교회라면 아파트 동호수가 있을 테고,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라면 상가 이름이라도 있을 텐데 뒤에 이어지는 주소가 없었다. 정수덕 전도사가 교회를 찾기가 어려울 거라면서 아파트에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을 했는지 도착하고 이해했다. 아파트 주차장 남은 공간에 마련된 입주민 커뮤니티 센터 안에 쉴만한교회가 있었다. 주소를 표기하는 것조차 애매한 곳에 진짜 교회가 있었다. 이 자리는 쉴만한교회가 어렵게 마련한 세 번째 거처다. 남들 눈에는 불편하고, 너무 작은 공간이겠지만 정수덕 전도사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보금자리다.

남편의 죽음과 코로나19

2019년 2월이었다. 정수덕 전도사의 남편이자 쉴만한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던 김충영 목사가 세상을 떠났다. 폐암 투병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이자 동역자를 잃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의 폐암 발생 원인을 알고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지금 자리로 이전하기 전에 상가 지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밤에는 쥐가 오가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깊은 지하라서 그런지 가스 냄새가 아주 심했고요. 그 가스가 유독가스더라고요. 저는 그때 막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만 잠깐 사역을 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그곳에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생활했는데 건강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열악한 환경인 줄 알면서도 지하에 있는 공간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교회 재정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다. 쉴만한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330㎡(100평) 정도로 넓고 깨끗한 상가에 교회를 얻었다. 성도도 꽤 많고, 해외선교와 농어촌돕기 등 구제사역에도 힘을 쏟았다. 그런데 IMF 이후 교회가 어려워졌다. 월세를 내지 못하고, 부채만 쌓여갔다. 김충영 목사와 정수덕 전도사는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렇게라도 교회만은 꼭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버틸 재간이 없었다.

“남편은 태권도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예배를 소홀히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개인 돈까지 탈탈 털어가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어려워진 재정 상황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다. 교회를 지하로 옮기면서 성도들도 많이 떠났다. 지하 교회 월세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남편 김충영 목사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폐암까지 발견됐다. 그런데도 남편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회개의 눈물만 흘렸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다니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거기에 폐암까지 걸렸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월세도 못내?’라는 말을 들을까 봐 늘 노심초사하셨고요. 교회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그 걱정만 하셨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봐 그것이 가장 죄스럽고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던가. 교회 사정을 알게 된 한 권사의 소개로 지금의 자리로 이사하게 됐다. 햇빛이 드는 지상으로 올라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런데 야속하게 또 고난이 이어졌다. 남편의 죽음과 코로나19라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교회를 이전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소천하면서 성도들이 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아들 셋까지 포함해서 성도 17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과 다른 한 가정, 집사님 한 분까지 성도 여덟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만은 포기할 수 없다

정수덕 전도사의 호칭이 사모에서 전도사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남편 김충영 목사가 소천하고 교회 사정이 더욱 안 좋아졌지만 교회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정수덕 전도사는 쉴만한교회를 계속 지키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 두 달 동안 매일 저녁 기도하고 회의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제가 교회 사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전도사 자격이 있었습니다. 노회 절차에 맞춰서 쉴만한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새롭게 목회 방향을 설정하면서 새로운 비전도 생겼다. 정수덕 전도사의 오랜 꿈이었던 ‘차세대를 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정수덕 전도사는 지금까지 차세대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다.

“차세대를 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부담 없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진짜 쉴만한 교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10년 전에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더 잘 설명해주고 체험시켜주고 싶어서 생태지도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텃밭 하나를 얻어서 교회학교 팜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도 땄고요.”

정수덕 전도사의 차세대를 향한 사랑이 교회에 고스란히 묻어있다. 작은 방 두 개가 전부인 교회 공간의 절반이 차세대를 위한 장소다. 방 하나는 예배당, 남은 방 하나는 차세대들이 책을 읽고 나눔을 할 수 있는 나눔방이다. 차세대들에게 세례를 주고 싶어서 최근 신학대학원에도 입학했다.

“노회 규정상 전도사 자격으로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중학생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세례를 줄 수 없어서 다른 목사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앞날을 직접 축복해주고 세례를 주려고 늦은 나이지만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쉴만한 교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정수덕 전도사의 하나뿐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차세대사역을 위한 승합차가 한 대 필요하다. 교회에 차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텃밭에 한 번 다녀오는 일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쉴만한교회는 지금까지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과 교회 헌금으로 어렵게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교회 재정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다. 특정 종교에 아파트 시설을 내줬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몇 주 전에는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교회를 빼달라고 통보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교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과 관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10-3346-9191(정수덕 전도사)
후원계좌: 122-078985-01-019(기업은행) 쉴만한교회

20210613-1348□-□□_□□□□□ 21. 6. 11. □□ 7:31 Page 6

세대와 교회

노인을 위한 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실천해야 하는 노인복지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19가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세상을 따라가기가 벅차다. 노인들은 오죽할까. 요즘 노인들은 걱정과 외로움은 기본이고, 왠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욱 힘들다.

노인복지전문가이자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유당마을' 이사장 양주현 장로(서초B공동체)를 만나 코로나19 시대 노인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물었다. 노인들이 어떤 자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양주현 장로는 "교회와 성도들은 노인들의 삶과 신앙생활 전반을 도와야 하고, 노인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권면했다. 다음은 양주현 장로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 서비스는 무엇이며, 교회와 성도들은 노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합니까?

"노인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복지 시설들이 노인들에게 식사, 의료, 문화, 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도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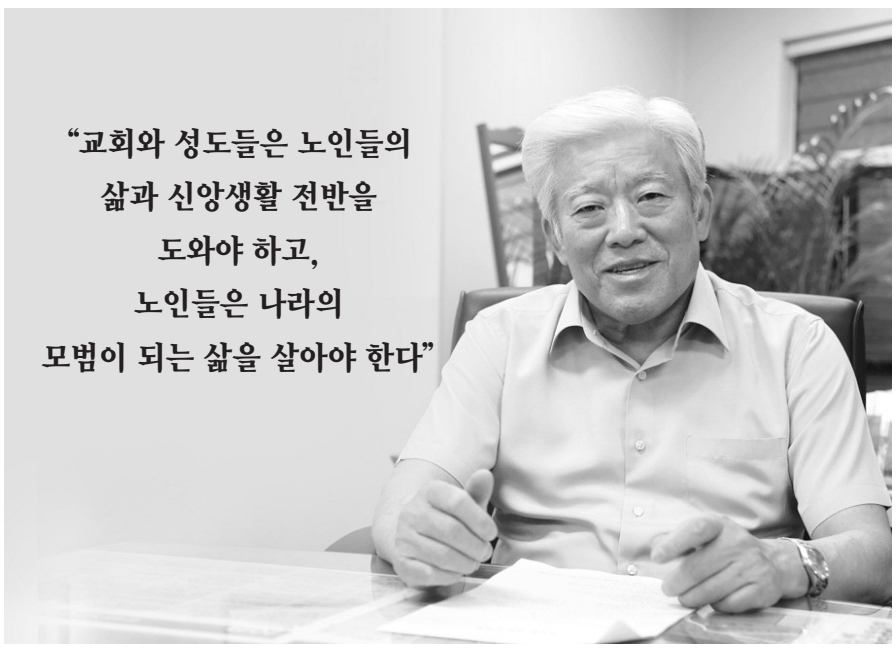
노인들이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식생활과 의료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식생활을 위해서는 메뉴의 질과 적당한 양, 그리고 위생 및 청결부문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질병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는 문화, 여가, 취미생활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며 아울러 노인들의 보다 안정된 정신건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체가 건강해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사랑과 용서가 메말라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인들의 마음도 몸도 건강함이 넘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섬김과 봉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는 노인들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위험이 그렇게 높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는 노인들의 삶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상당히 약한 편이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노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언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노인들도 꽤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환기, 마스크,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는 필수입니다. 실내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환기를 해야 하고, 지하 공간에서는 더욱 각별하게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가급적이면 통풍이 잘 안되는 지하 공간은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 환경에도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매주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면 불안합니다. 영상 예배, 미디어 예배를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환경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로비를 트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환경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보다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노인들의 정신질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일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과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아웃리치를 제안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은 노인들의 삶을 돕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수록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노인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움은 식사제공과 건강관리를 돕는 것입니다. 만약 노인이 쾌적하지 못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환경개선도 도와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노인을 위한 아웃리치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전 세계 이웃들을 찾아가 섬김과 봉사활동을 할 때 그들이 크게 감동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알게 되듯이 지역사회 노인들을 잘 섬기는 것도 정말 뜻깊은 아웃리치가 될것입니다. 팀을 이뤄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처음 알게 되어 믿음생활을 시작한 노인들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노인들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을 줘야 합니다. 노인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면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저는 참된 신앙생활은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삶 속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타나고, 회개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노인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참석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이름 그대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어둡고 무미건조한 세상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노인들은 어떤 자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까?

"노인들이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교회 리더십들이 먼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더욱 겸손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역관리에도 철저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병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사라지리라 생각되며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빛과 소금'과 유당마을을 소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 '빛과 소금/유당마을'은 어둡고 부패한 사회 곳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지,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복지, 자율적 창의와 신뢰의 복지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빛과 소금'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의 이름이 유당마을입니다. 유당마을에는 300여 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실버타운으로 1988년 7월 1일 개원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자락에 있으며, 도심과 가깝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자랑합니다. 주거, 의료, 문화가 복합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활기차고 건강한 어르신, 생활 보조가 필요한 어르신,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 각각에게 필요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초의 실버타운이 아닌 최고의 품격을 지향하는 스마트 실버타운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031-242-0079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7

전문가 기고

‘사랑의 대강령’과 ‘황금률’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의료 정의와 원칙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의료윤리연구회 회장)

정의(正義)란 이성적인 인간 집단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로써 모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범법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보상으로 교정이 되어야 하고(교정적 정의), 일의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지켜져야 하며(절차적 정의), 복지나 의료 영역에서 본인의 몫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어야 한다(분배적 정의).

의료 현장에서 정의는 의료윤리의 문제다. 의사들에게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키는 원칙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윤리 4원칙(자율권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 번째 원칙이 정의에 관한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의료의 혜택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윤리적인 의료라는 의미이다.

의료에 대한 네 가지 정의론

실제적으로 편중됨 없이 공정한 분배를 시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의 원칙은 없다. 각 사회 문화에 따라 의료에 대한 몇 가지 정의론이 적용되고 있다.

첫째, 공리주의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제1원칙으로 삼는다. 행위의 옳고 그름보다는 결과의 유용성이나 사회 전체 행복의 크기를 통해 판정한다.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회복이 어려운 소수를 포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문제는 결과에만 치중해서 정의가 요구하는 도덕적 의무가 무시될 수 있다. 소수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면서 가장 병들고 취약한 계층이 소외될 위험이 커진다. 그럼에도 공리주의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더 많은 생명이 살 수 있는 원리라면 내 생명이 위중할 때 내게도 더 많은 확률로 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주의다. 자유시장의 이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법과 질서에 따라 개인 재산과 자유를 우선시한다. 기본 의료서비스가 취약 계층에게 제공되고 누구에게나 의료 접근성에 차별이 없다면, 의료에도 자유시장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환자는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는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며 능력껏 진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돈은 단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일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만 자유롭게 의료를 이용한다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다른 전문직(교수, 성직자, 법조인)과 달리 의사에게만 이윤추구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도 보편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그래도 자유주의는 더 좋은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시장 원리에 따른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어 의료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 된다.

셋째, 엄격한 평등주의다. 사회구성원이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는 환자와 의사의 자유를 모두 제한한다. 국민은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고, 의사도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할 필요를 못 느낀다. 결국 하향평준화로 가게 된다.

넷째,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융합된 ‘자유-평등주의’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료를 누릴 권리를 갖는 동시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의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능력 있고 노력을 더 한 자가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만 제한을 두고, 약자가 적은 몫을 가져야 하지만 더 주는 것이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장애나 질병 때문에 사회에서 자신의 공정한 몫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롤즈(Rawls)는 “강자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의 자산(common asset)으로 여겨 약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으로 얻어진 개인의 능력을 마치 복권 당첨금처럼 평등하게 나누자는 것은 역차별을 일으킨다. 상위 계층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취약층의 무상 복지를 권리화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렇듯 의료 정의의 이론들은 각기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면 다른 것이 약화하기 때문이다. 각 문화와 시대에 맞춰 균형 있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영역에서 정의를 지켜야 한다. 첫째, 의료에 배분된 예산을 정의롭게 사용해야 한다. 의사 양성과 의학연구에 재정을 지원해야 하고, 보건의료체계에 적정 보상을 해야 한다. 동시에 상해나 장애를 입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에 지출해야 한다.

둘째, 의료제도를 정의롭게 운영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라는 명칭으로 보험적용 범위를 마구 넓히는 것은 위험하다. 불필요한 재정 소모만 늘어날 뿐이다.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나 공중보건 및 예방에 대해서는 평등주의에 따라 진료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는 자유주의 이론을 따라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장점이 있다. 건강보험을 통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평등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 취약층에게는 거의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단점은 더 치료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있고 환자가 돈을 더 지불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평등한 배분이라는 틀에 갇혀 환자와 의사의 자율권을 제한해 버렸다. 또한 의사 양성이나 개인 소유의 병원 설립에는 일절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의사와 병원을 국가 소유물처럼 여기는 면이 있다. 의료인 개인의 노력과 소유권을 정당하게 지켜줘야 국민들도 정당하게 자신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배려와 양보, 희생의 사랑 실천

이 땅에서의 정의 원칙은 ‘공정한 분배 방식’에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 따라야 할 정의 원칙은 ‘사랑의 대강령’과 ‘황금률’이다. 사랑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마 22:37~40)에서 기인한다. 호감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자를 호감 있는 자처럼 대우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다.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마 7:12). 황금률은 친히 인간의 입장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랑은 일상에서 배려와 양보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약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시며 4대 취약 계층인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다(슥 7:10). 이 명령에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 취약 계층이 떨어질 만한 구멍을 온몸으로 막고, 걸려 넘어질 돌부리를 제거하는 몇 가지 일에 성도들이 나서야 한다.

첫째, 의사들은 취약한 환자들에게 시간을 더 들여야 한다. 의료수가가 낮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병원은 적은 돈을 내는 환자를 빨리 보내고 고가의 검사를 받는 환자에게 시간을 더 쏟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취약 계층에 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의사의 전문직 윤리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둘째, 사회 합의를 통해 약자를 위한 법률 개정을 도모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정책은 재원을 낭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 정의로운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사회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 힘써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정의의 분배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성도들은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암이나 임종기의 죽음 앞에 있는 환자를 존엄한 죽음, 즉 천국으로 안내하는 일을 해야 한다. 무의미한 치료로 환자를 고통받게 하거나 의료 자원을 소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 환자의 통증을 조절해 주고, 그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써야 한다.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의료 정의는 약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땅에서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함으로 공정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성도들이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방법은 배려와 양보를 통해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미국의 초대형 건축설계회사 ‘팀하스’의 하형록 회장은 심장병으로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에게 이식되어야 할 심장을 옆 병실 환자에게 양보했다고 한다. 옆 병실 환자가 당장 이식받지 않으면 자신보다 먼저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생명의 기회를 기꺼이 양보한 것이다.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자기 몫을 야무지게 챙겨야 정의롭다는 이 시대에 사랑의 희생은 참으로 위대한 윤리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행한 모든 희생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정의를 행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한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8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최선의 감정 선택!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저의 의견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화를 내고 싶은데, 제가 크리스천인 것을 다 알아서 눈치가 보입니다. 제 안에 쌓이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천이 화를 내면 죄일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존재라고 해서 인간 본연의 감정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 너무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욕구가 있다. 다양한 실수와 흠결도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이 모든 것을 신앙의 이름 하나로 가둬두고 살 수는 없다. 다만 우리에게는 성화(聖化)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책임이 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살면서 더 많은 화를 느끼게 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을 다독거리고 타인의 감정도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완벽함만을 요구하는 건강하지 못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만다. 세상의 요구가 어떠하든 화내지 않고 모두 수용해 준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빛과 소금은 주변에 저항하는 존재이다.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겨낼 저항이 있다. 그 저항을 이겨내다 보면 때로 분노를 느낄 때가 있다. 그 분노가 정당하다면 때로 표현할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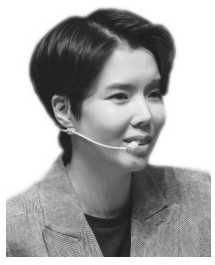
화를 내야만 더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화를 내야 한다. 다만 그 화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크리스천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먼저 화를 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는 허용범위가 넓고, 타인에게는 까다롭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 요새 하는 말을 빌리자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감정이입이 있는 경우이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모두 들여다보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기대치가 너무 크다. 그 기대가 좌절되면 쉽게 화를 낸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왜 화를 내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게 정당성 없는 화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때는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받을 수 있다. 정당하다고 해서 표현 방식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인격의 자질이 드러난다. 아무리 정당한 화라고 해도 주변을 고려한 성숙함이 없으면 신앙에 걸맞은 건강한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우리의 숙제이다. 심리적 노력 안에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감정 선택'을 제안하고 싶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시글락에서의 사건이 나타나 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가족을 시글락에 두고 군사 작전을 위해 떠나 있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 마을을 초토화한다. 다윗과 부하들은 완전히 비탄에 빠졌고 그 비탄이 분노로 바뀌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비극을 리더인 다윗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 이 분노가 그들에게는 정당한 듯 보였지만, 최선은 아니었다.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

다윗에게 이 상황에 대한 비탄과 분노가 왜 없었겠는가? 다윗 역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잃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삶과 터전이 파괴된 상황을 누구보다 직면하고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했다. 게다가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성난 공동체는 사실 다윗이 자비로 거둬들인 사람들이었다. 다윗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정을 선택한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삼상 30:6).

세상에는 너무 많은 분노가 있다. 그 분노가 어떤 움직임의 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가 출발이 될 수 없다. 분노가 우리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노가 우리의 마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우리는 비통함 안에서도 최선의 감정 선택을 해야 한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윗은 기도 속에서 그 일을 해냈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 기도 속에 분노를 몰아내고, 슬픔을 다독이며, 다시 일어나 백성을 돌아보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이것이 크리스천 청년들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최선의 감정 선택 말이다.



원유경 목사
(SN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는 과정도 함께하는 관계

"직장 일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이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짐을 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긴장이자 압박이다. 성장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심신을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두 가지 성격이 모두 포함된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성취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성장이나 성취와 별개로 심신을 갉아먹는 스트레스도 있다. 사연자의 경우에는 후자에 근접한 것으로 이해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스트레스든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을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성격이 있다.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괜찮지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스트레스가 직장 업무에서 오는 것인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심리적 취약성이 드러나서 극대화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주기에 관한 특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경험하는지, 단기간 있다가 사라지는지 살펴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직장 스트레스를 심하게 경험하는 남편의 고민은 자신의 어려움을 아내와 나누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생활과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배우자와 나누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성장과정에서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자리 잡힌 것을 파악하면 좋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면한 어려움을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음에 있는 힘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지 아내에게 말해서 짐을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남편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면 아내들이 힘들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짐을 지어주기 싫어 혼자 견디는 남편들이 있는데 아내들은 그런 마음을 나눠줄 때 남편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남편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측면은 '수용 받음'의 문제다. 자신의 어려움을 잘 나누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수용 받지 못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자녀 양육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남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다움'이라는 틀 안에서 훈련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암시가 자리 잡고 있다. 나 역시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뿐더러 눈물 등의 감정을 혹시라도 표현하면 수용보다는 핀잔이 주어지는 기억이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더욱 견고한 벽으로 쌓여 갔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결혼 관계는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관계여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불안지수가 높다면 아마도 남편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털어놓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의 인식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면 그 마음을 받아주고 위로해 주는 따뜻한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데 불안을 증폭해서 해석하는 배우자라면 쉽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로 나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부의 건강성'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남편이 직장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을 배우자에게 털어놓았을 때 배우자의 반응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라고 수용해준다면 남편은 큰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직장생활하면서 힘든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을 공감해주기만 해도 힘을 얻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아내가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많은 남편들이 "그만둬!"라는 식의 해결지향적인 대답을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용과 공감이다. 두 팔 벌려 들어줌이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있는 배우자라면 털어놓는 것을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는 함께 성장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다.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이다. 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슈의 결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함께하는 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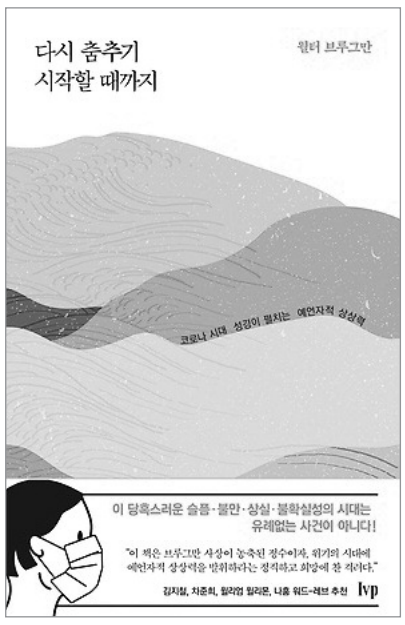
적용: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서로 경청해 주고 공감해주세요.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9

책 읽어주는 목사

다시 춤추는 그날!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월터 브루그만 저 | IVP | 8,000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인류의 삶이 급속히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지난 1년 동안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 질문들일 것이다. 이 질문에 답을 주기라도 하듯이 월터 브루그만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글로 펼쳐냈다. 브루그만은 구약학자임과 동시에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설교가이다.

그의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는 제목부터 예언적이고 희망적이다. 브루그만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삶을 '졸업식이 취소되고 결혼식이 연기되는 상황'으로 설명한다. 졸업식과 결혼식은 인간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모두 함께 축복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빼앗고, 감격과 축복이 사라지게 했다. 너무 평범하고 당연하게 인식되던 행위들이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외딴 섬에 표류해 버린 것처럼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의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브루그만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결혼식이 취소되는 현상이 무려 세 차례나 있었다고 주장한다. 예레미야 시대도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시대만큼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시체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사라진다"는 예레미야서 7장 기록은 현재 인도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보는 것만 같다.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었던 예레미야 시대의 팬데믹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겪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혼란 시기에 예레미야는 과연 무엇을 예언했는가?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이 '다시 춤추는 그날'을 예언했다. 결혼식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고 기쁨이 넘치는 자들의 아름다운 춤사위가 열기를 더해간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통해 회복될 거라고 예언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렘 33:1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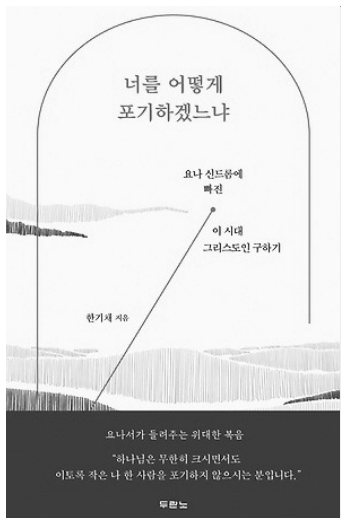
브루그만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한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란 말인가? 브루그만은 그 이유를 과거에서 찾지 않고 미래에서 찾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발견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으셨다. 언제나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때문이다.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하신 왕,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

브루그만의 책을 덮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생채기 났던 마음과 영혼, 삶과 사역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고통에 매몰되어서 미래에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영적인 나약함을 회개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될 그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춤추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그날을 희망하며 찬양의 힘, 예배의 힘으로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소망한다.

김재승 목사
(양재캠퍼스 파워웨이브)

두란노 신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한기채 저 | 두란노 | 9,000원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제목이 이 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 문장 하나에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요나서 강해다. 요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마음대로 니느웨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요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욘 4:11b)는 하나님의 열린 질문으로 마무리 된다.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이 책의 저자는 요나서가 요나의 경험과 깨달음에 기초한 고백록이라고 말한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나의 간증집으로 개인의 변화와 영적 성장 이야기이고,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고 했다.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다. 또한 요나를 끊임없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프란츠 카를 아샤르'

설탕과 사탕무

18세기 유럽에서 설탕은 값비싼 식재료였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사탕수수는 유럽에서 재배할 수 없었고 카리브해에 식민지를 둔 영국과 프랑스가 설탕 공급을 독점했다. 프랑스 생도맹그령에서 생산되는 설탕은 당시 프랑스 1년 재정의 30%에 달할 정도였다.

1747년 독일의 화학자 안드레아스 마르크그라프가 사탕무를 연구하다가 사탕무에서 당분을 발견했다. 사탕무는 추운 북유럽에서도 잘 자라는데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위그노(프랑스 개신교도들)의 후손인 프란츠 카를 아샤르가 스승의 연구를 이어간다. 사탕무에서 설탕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직접 사탕무를 재배하면서 연구에 몰두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 실패하고 만다. 가진 것이 없었던 프란츠 카를 아샤르가 절망에 빠졌다.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 3세가 프란츠 카를 아샤르의 사탕무 연구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프란츠 카를 아샤르의 사탕무 연구를 지원한다. 1801년 슐레지엔(현 폴란드 서남부와 체코 동북부)에 사탕무 공장을 차린 프란츠 카를 아샤르는 사탕무 400톤에서 설탕 16톤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그 기쁨도 잠시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프로이센의 사탕무 공장이 불타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랑스의 영국 봉쇄령으로 유럽의 설탕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온 유럽의 과학자들이 다시 프란츠 카를 아샤르를 찾았다. 영국의 사탕수수 농장주들도 프란츠 카를 아샤르를 찾아와 20억에 달하는 거액을 건네면서 사탕무 제조법을 파기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프란츠 카를 아샤르는 사탕수수 농장주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사탕무 공장과 아카데미를 세워 무료로 사탕무에서 설탕을 추출하는 방법을 모든 유럽에 보급했다. 특허조차 남기지 않았던 프란츠 카를 아샤르는 결국 다시 빚더미에 올랐다. 1821년 초가집에서 소천했다. 프란츠 카를 아샤르는 빈손으로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위대했다. 19세기 유럽에서 소비되는 설탕 30% 이상을 사탕무에서 추출했다. 지극히 평범한 가족들도 설탕이 주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프란츠 카를 아샤르가 사탕무 제조법으로 부자가 되지 않고 인류에게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설탕이 주는 이 달콤한 기쁨을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사탕무라는 위대한 직물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10

코로나19, '예배'로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수원캠퍼스 청소년예배집회 '리:얼라이브'

다시 살아나다! 새로 태어나다!

지난 5월 말 진행된 수원캠퍼스 차세대 예배집회 리:얼라이브(이하 리:얼라이브)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처음 '리:얼라이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떨떨한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 장소로 향했다.

본당에 도착했더니 얼떨떨한 마음이 사라졌다.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선배들, 부모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HIS청년부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에 맞춰 즐겁게 찬양하고 있었는데 찬양인도자가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 두 손을 들고 찬양했다. 손을 들고 찬양했더니 더욱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HIS청년부 언니오빠들이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나도 나중에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정말 신기하게 중등1부 찬양팀을 모집했다. 나는 중등1부 찬양팀 싱어로 섬기게 되었다.

리:얼라이브 설교 시간에는 김소리 목사님과 이상진 목사님께서 내게 딱 맞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은 김소리 목사님이 해주셨던 '어노인팅'이라는 주제의 설교다. 어노인팅은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두 가지 기름을 발랐다고 한다. 하나는 물건에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물건을 특별히 구별되게 사용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구별되게 사용하신다는 뜻이라고 했다. 나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2일 수원캠퍼스 청소년예배집회 '리:얼라이브' 집회 현장.

두 번째 집회에서는 이상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고 하셨다. 믿었더니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무조건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납득이 되어서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기도 시간에는 세 가지 거룩한 결심을 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음란물을 시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성령 충만한 기도 시간에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상진 목사님께서 방언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께 너의 입술을 맡겨"라고 하셨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작지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셨다. 자기 전에 10분 정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리:얼라이브 집회에 참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매일 건강하게 교회와 학교 가는 일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리:얼라이브 집회에 참가하면서 알게 되었다. 집회 이름처럼 다시 살아나고,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 나의 삶을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 아프리카 친구들을 꼭 도와주고 싶다.

/ 김시온 학생(수원캠퍼스 파워웨이브)

코로나19, '온라인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와이무슬림 스태프 간증

크게 쓰임 받는 선교스쿨

와이무슬림 과정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문턱이 낮아졌다. 지난해부터 교재비를 제외한 수강료를 무료로 진행하면서 수강인원이 점차 늘었다. 8기 온라인 와이무슬림 과정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수강했다. 또한 기독 OTT '퐁당'을 활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교회 지침으로 기독 OTT '퐁당'을 활용한 과제를 시도했다. 수강생 대부분이 과제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영상을 시청하면서 큰 교육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수강생들의 간증에 더 풍성한 은혜가 가득했다. 농어촌에서 이주민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기독 OTT '퐁당'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

수강생들의 변화도 있었다. 온라인 양육을 시도하면서 수강층이 넓어지고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20대 청년들이 수강인원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이 아웃리치와 단기선교의 꿈을 구체화하도록 하셨다. 수강생이 가장 많은 30~40대들에게는 이 땅에 보내주신 250만 명의 이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 50대 이상 성도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후방에서 선교지원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셨다. 선교사들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셨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입국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방전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다. 일부 선교사님들은 국내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이스데반 선교사가 온라인 와이무슬림 수강생들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온라인 와이무슬림 과정은 수강생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질 좋은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 홍보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8기 온라인 와이무슬림의 수강생 30%가 네트워크를 통한 2차 소개로 강의를 수강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강의의 질을 높이고, 수강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면 수강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

온라인 와이무슬림을 비롯한 선교스쿨이 수강생을 배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조직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주민들이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다. 한 수강생은 무슬림 올케가 생겨 몇 년을 고뇌하고 있었는데 7기 온라인 와이무슬림 과정에서 올케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지혜를 얻어 감사하다고 간증했다. 이처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운행되고 있음을 바라봐야 한다. 새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별해야 한다.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고 나아가면 새 시대에도 크게 쓰임 받는 선교스쿨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 장정열 팀장(과천의왕공동체)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11

2021 청년 다니엘기도회

6월 21~26일 오후 8시 온라인

'2021 청년 다니엘기도회'가 막 오른다.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오후 8시 다니엘기도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청년 다니엘기도회는 다니엘기도회(위원장 김은호 목사)에서 진행하는 초교파 연합기도회다. 이 시대 청년들의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자리다.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참여할 수 있다.

청년 다니엘기도회에서는 6월 21일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2일 이재훈 목사, 23일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24일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25일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26일 박성민 목사(CCC대표)가 설교한다. 문의: 02-6413-4922~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대학청년부 '배남프' 교육 봉사자 모집

선교사 자녀들에게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대학청년부에서 '배워서 남 주자 프로젝트'(이하 배남프) 교육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배남프는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일대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튜터링 프로젝트다.

배남프는 10주 동안 이어진다. 주 1회(최대 2회)가 원칙이다. 배남프 교육 봉사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허입과정을 거쳐 교육 봉사자를 선발한다. 배남프 교육 봉사자로 선발되면 2주 교육을 수료한 다음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교육 봉사자에게는 온라인 수업 기구와 봉사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배남프 홈페이지(onnuribnp.com)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570-7521 / 홍하영 기자

6월 화요성령집회 '청년, 영적 핵심 키워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6월 화요성령집회가 '청년, 영적 핵심 키워드'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6월 1일 '비전, 본질을 찾아라'(사 6:1~13) 김승수 목사, 8일 '열정, 멈추지 않는다'(왕하 13:14~19) 김용민 목사, 15일 '도전, 한계는 없다'(수 14:6~15) 김승수 목사, 22일 '거룩, 뜻을 정하다'(단 6:8~16) 김승수 목사, 29일 '소망, 미래가 있다'(렘 32:1~15)를 주제로 이서진 목사가 설교한다.

화요성령집회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예배 예약을 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 예약시스템에 접속하면 바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02-570-7521

/ 홍하영 기자

일대일 양육자를 위한 캠퍼스 특강

6월 16일부터 12월까지 온라인(Zoom)

일대일사역팀에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를 위한 캠퍼스 특강을 실시한다. 6월 16일 오후 9시 평택캠퍼스를 시작으로 7월 11일 남양주, 7월 13일 서산, 8월 22일 양지, 8월 29일 수원 등에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일대일 양육자를 위한 캠퍼스 특강은 '일대일 제자양육과 창조신앙 그리고 코로나19'를 주제로 이기훈 목사가 강의한다. 특강에 참석하고 싶은 성도는 각 캠퍼스 일대일사역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15-3220

이번 주 추천 '퐁당' 콘텐츠

Q&A 107 소요리문답

출퇴근길에 만나는 교리의 진수

참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뭔지 모르겠다는 성도들이 많다. 이정규 목사(시광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장로교 교리의 진수"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왜 교리를 알아야 할까? 이 목사는 "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요약"이라며 "성도들에게는 잘 정리되고 체계적인 성경적인 교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A 107 소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이정규 목사가 제대로 풀이해주는 콘텐츠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등을 주제로 제작된 영상이 기독 OTT '퐁당'에 업로드되어 있다.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다.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 가볍게 보기 좋다. 순예배나 가정예배에서 활용해도 좋다.

온누리M온라인포럼 개최

6월 26일 오전 10시 온누리M미션 유튜브 채널

온누리M미션이 6월 26일(토) 오전 10시 '온누리M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뉴노멀을 한국 교회와 나누는 포럼이다.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다.

온누리M온라인포럼에서는 페이스북 전도, 움직이는 교회, 네팔예배개척, 미디어 사역 등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경험하기 어려웠을 새로운 사역을 한국 교회와 나눈다.

새신자교육, 성경 읽기 쓰기,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등 코로나19로 더욱 풍성해진 이주민사역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이다.

문의: 031-491-9650

갈렙선교학교 6기 참가자 모집

7월 5일부터 매주 일요일 온라인

갈렙선교학교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온누리교회 양육본부 유튜브채널에서 진행된다.

갈렙선교학교에서는 '선교사의 부르심과 파송',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돌아보기', '선교사 이해와 돌봄', '문화장벽과 선교', '갈렙의 변화관리', '미션 헬퍼십', '이주민 선교', '선교사와 동역하기' 등을 주제로 8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 신청은 6월 27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708-7700

어린이신문 작품 모집

차세대 글, 시, 그림 등 이메일 접수

온누리신문에서 6월 27일부터 어린이신문을 코너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신문 지면에 들어갈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을 보낼 때는 짧은 작품 소개(A4용지 2~3줄 분량),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함께 보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코너에 게재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온누리교회 카카오 채널 개설

카카오톡에서도 온누리교회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카카오채널에 접속하면 온누리교회 예배 안내 및 예약, 좌석 스캔, 교회 소식, 광고, 3분 설교, 주보 및 온누리신문 보기, 아이스쿨 접속, 새가족 등록과정 등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를 검색해서 등록하면 된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왕들의 이야기', '동행 세미나, 베드로전후서'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왕들의 이야기(열왕기서 집중반)' 세미나가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성민 교수(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가 열왕기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 강의한다. 회비는 9만 원.

'동행 세미나, 베드로전후서' 세미나는 8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채영삼 교수(백석대 신약학)가 강의한다. 이 세미나는 해외 선교사,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수강료 일부가 기부되는 세미나이다.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나 목회자, 연락처(이메일), 사역 국가(혹은 교회명)를 알려주면 된다.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나 목회자가 없으면 바이블칼리지에서 선정한다. 회비는 3만 원.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2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56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12

▌세례 간증

최고의 선물 '승우'

/ 한경식 성도(한강공동체)

결혼하고 십 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다. 아기가 금방 생길 줄 알고 미리 이름도 지어 놓고 기다렸는데 쉽게 생기지 않았다. 그동안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말로 다 못할 힘든 과정을 모두 겪었다.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부모님께서 입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하셨다. 처음에는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망설였다. 입양에 대한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입양 교육을 이수하면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생전에 "입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입양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천사 같은 승우가 우리 부부에게 왔다. 유독 나와 아내를 많이 닮은 승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아들이 맞았다. 엄마 아빠가 된 우리 부부는 서툴지만,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승우에게 문제가 생겼다. 승우가 말이 조금 늦다고만 생각했는데 발달지연장애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온갖 나쁜 생각과 걱정,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 중에 문득 승우를 우리 부부의 소유물로 여기고 욕심을 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성경적 부모교육 등을 들으면서 자녀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부모는 단지 청지기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승우를 우리 부부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승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끌어안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아직 또래에 비해 조금은 느리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을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다. 요즘 승우는 아빠 소리도 제법 잘한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를 내 입에 넣어 줄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든다. 그동안 다른 가정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는데 우리 아들도 유아세례를 받았다.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 승우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 한승우를 주의 교양과 훈계, 사랑으로 양육하고자 한다. 우리 가정에 최고의 선물 승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대학청년부 CDC 수료 간증

드디어 내가 말씀 위에 섰다!

/ 박채연 자매(하늘대학부)

처음 순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순장이 되고 보니 내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전해야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치를 보느라 진리가 아닌 나의 말을 전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잘했어"라고 스스로 위안하곤 했다.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마침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 시기가 다가왔다.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 강의를 언젠가는 들어야지 생각만 했었다. 구체적인 기대나 소망이 없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신청했다.

CDC를 들으면서 어려웠던 점은 크게 없었는데 과제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다. 특히 새벽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웠다. 과제니까, 수료하려면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예배를 못하는 나를 정죄했다. 동료와 함께하면서 비로소 새벽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새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회복했다.

CDC 과정에 참가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신 것과 분명하게 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재정립하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가 많았는데 창세기의 하나님, 죄, 성령, 십자가 등에 담긴 말씀을 의미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이 알게 되었다. 느끼고, 채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눌 때에도 은혜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창조의 하나님을 새롭게 묵상한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다가 죄에 빠질 때가 많았다. 죄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 12:3).

이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 금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이 기도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드디어 내가 말씀 위에 서게 됐다. 감사하다.

미얀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최영석 선교사
(온누리M미션)

미얀마 국민들이 군사정권 60년 동안 경험한 것은 부정과 부패, 억압과 차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안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수치 국가 고문이 다시 승리했습니다. 군부는 이를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2021년 2월 1일 군사령관 민아웅훌라잉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온 국민이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세력이 무자비한 살상과 폭력을 사용해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사망자가 800명에 이르고, 구속구금자도 4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쿠데타 세력에 대한 저항이 다소 주춤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국적인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한결같이 군사정권의 독재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아래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는 그들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미얀마 회복을 위해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김포M센터 미얀마공동체.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군사독재의 무자비한 진압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들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얀마에 민주정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얀마를 이 절박한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쿠데타에 대항하는 민주연합세력입니까? 국제사회의 일치되는 압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미얀마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미얀마 국민들이 깨달을 때가 온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미얀마에 복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소수민족들이 복음화되어서 미얀마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얀마의 주종족인 버마족 97%가 불교도입니다. 크리스천 소수민족을 향한 버마족의 공격과 탄압 또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미얀마를 떠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의 대상이었던 크리스천 소수민족들이 미얀마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미얀마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상과 폭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백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저들을 품고,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미얀마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에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13

장로칼럼

한 장의 벽돌이 모이면 건물을 세우듯이

정상건 장로
(CGNTV
운영위원장)

CGNTV는 지난 16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 콘텐츠를 전해왔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들이 CGNTV를 통해 신앙을 지키고 에너지를 충전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CGNTV도 인터넷과 유튜브 등으로 지경을 넓혀왔다.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기독 OTT '퐁당'이다.

최근 CGNTV가 선보이고 있는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감동이다. 기독 OTT '퐁당'에도 유익한 콘텐츠가 많다. 〈순전한 기독교〉, 〈예수가 전한 팔복〉 등은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언플랜드〉, 〈신은 죽지 않았다〉 같은 영화들은 감동뿐 아니라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생각나게 해준다. 앞으로 공개할 콘텐츠도 기대가 크다. 곧 공개될 〈톨레 레게〉라는 콘텐츠는 성경을 암송하는 콘텐츠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톨레 레게〉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 삶의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기독 OTT '퐁당'은 다음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플랫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시대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부활주일 이후 '기쁨의 50일 가정 신앙활동'을 진행했는데 매주 월요일은 기독 OTT '퐁당' 키즈콘텐츠를 시청하게 했다. 앞으로도 다음세대들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쉽게 접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키즈콘텐츠가 필요하다. 지금도 기독 OTT '퐁당'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대별 수준에 맞는 성경공부 콘텐츠,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적극적으로 허입 및 제작해야 한다. 요즘 아이를 달랜다고 스마트폰부터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렇게 접하는 콘텐츠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 자녀들이 나쁜 콘텐츠 보기를 바라는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다. 말씀으로 잘 자라기를 바랄 것이다.

기독 OTT '퐁당' 키즈콘텐츠 허입 및 제작을 후원하는 캠페인 '달려라! 퐁당'이 한창이다. CGNTV 운영위원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라! 퐁당'을 알리고 있다. 캠퍼스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캠퍼스 담당목사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부천캠퍼스에서는 자체적으로 '달려라! 퐁당'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달리고 있다.

'달려라! 퐁당'에 동참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리라 믿는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실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이 사역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달려라! 퐁당'으로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다. 물론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장의 벽돌이 한데 모이면 거대한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의 헌신이 귀하게 쓰일 줄로 믿는다. 한국 교회의 내일이 오늘보다 거룩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한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달려라! 퐁당'을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고 싶다.

권사칼럼

이스라엘과 '드보라학당'

이순희 권사
(성북공동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다섯 살 되던 해 성당에 새로 생긴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다. 거기서 찬송가도 배우고 즐겁게 유치원을 다녔다. 그러다 교장선생님이셨던 외할아버지께서 다른 도시로 전근 가시면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자녀 셋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였다. 어렸던 나는 엄마도 보고 싶고 친구도 없어서 외할머니를 귀찮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외할머니는 귀찮게 구는 외손녀를 돌보는 일이 영 힘드셨는지 교회에 다니는 이웃 언니에게 나를 맡기셨다. 그렇게 내가 교회에 가게 됐다.

6.25 전쟁이 막 끝나가던 시절이었다. 언니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군용 텐트 바닥에 볏짚 가마니를 놓고 한 사람씩 앉아서 밤마다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곤 했다. 모두 기도하는 그 밤, 예배가 끝나면 언니는 잠든 나를 업고 밤길을 걸었다. 언니의 등 뒤에 업혀서 보았던 밤하늘의 별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유년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졌다. 대학을 다니면서 힘든 공부와 어려운 현실에 지쳤던 나는 그 시골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가 생각났다.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 모여 어른들이 부르던 찬양이 내 입술에 맴돌았다. 굳건한 반석 되신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 무조건 믿으라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1989년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비롯한 각종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았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예수께서 사셨던 그 땅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관련 책들을 모조리 사서 읽고 공부하며 이스라엘에 갔다. 처음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그 벅찬 감정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감람산에 오르면 눈물 흘리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그 아래 왕곡에서는 멜기세덕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는 양 떼를 치던 다윗을 만났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도 들었다. 가는 곳마다 성경의 사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나서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때마침 교회에서 성경역사와 지리 공부반이 개설되었다. 3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지도 목사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다며 이스라엘로 떠나셨다. 우리 순식구들끼리 매주 모여서 3년 동안 나머지 부분을 공부했다. 그때 우리가 공부하던 교재를 두란노서원에서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이문범 저)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그 책이 출간되고 마음이 맞는 권사님들과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카페에 모여 책을 읽고 나눴다. 배우면 금방 잊어버려도 즐겁게 공부하자는 뜻으로 '봉숭아학당'이라는 모임 이름을 지었다. 사사 드보라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고자 '드보라학당'으로 개명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Zoom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 지경이 더욱 넓어졌다. 온누리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리 인도네시아에서도 참여하는 글로벌 학당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저자 목사님을 초빙해서 특강도 듣는다. 드보라학당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만들어 낸 기적이다.

신앙에세이

두려움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갑자기 찾아왔던 두려움들은 꽤 크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영향력이 있었다.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때에 갑자기 찾아왔던 두려움은 살던 곳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하는 것이었다. 사실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신기함과 긴장된 재미였다.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사했다. 그때 너무 새로운 환경과 특이한 언어(사투리)에 매료(魅了)됐다. 1년을 머무는 동안 엄청 큰 사고를 겪어야 했고, 2학년을 마칠 때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로 와서 또 한 번 전학을 경험했다. 3학년이 되기 전에 이쪽 산동네에서 반대편 산동네로 이사했다. 처음 경험한 이사가 너무 멀어서였는지 두 번째 이사는 크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번 산동네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산이 있는 산동네여서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훈련소가 되었다.

중학교 시절 찾아왔던 두려움은 골목길에 있었다. 학교에서 버스로 큰길까지 오고 나면 산동네까지 여러 갈래 골목길을 지나 걸어가야 했다. 원래 골목길이란 정취(情趣)를 자아내는 곳이다. 그런데 중학생 시절의 미아리 골목길은 깡패와 양아치들이 자기보다 약한 동생들의 주머니를 털어먹고 살려고 도사리고 있는 아지트였다. 그 두려움은 트라우마를 주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짜증이 나고 귀찮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감정이었다. 그들은 1980년대 초반에 국가적 정책으로 인해 어느 순간 모든 골목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고등학교 시절의 두려움은 친구들에 대한 것이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와는 매우 다른 분위기를 친구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친구들이 조금씩 삭아가고 있었다고 해야 하나…' 정답 없는 미래라는 현실에 눌려버려 순수함의 꽃을 피워내지 못한 친구들이 나를 너무 서글프게 했다. 고등학교 시절 'J에게'라는 노래에 끌려 대중가요의 세계에 빠졌고, 1983년 많이 불렸던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1984년 가을이 되어서야 꽃을 활짝 피워내지 못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목이 터져라 부르고 또 불렀다.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의리 있는 친구랍시고 친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다.

대학교 이후 지금까 나를 갑작스럽게 두렵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 타인의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소식'을 듣는 것이었다. 갑자기 가난해져 버린 사람들, 갑자기 중병에 걸린 사람들, 갑자기 관계가 깨진 사람들, 갑자기 재해를 입은 사람들, 갑자기 사고로 다친 사람들…. 타인의 크나큰 아픔이 '혹시 나로 인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야 할 텐데…'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내 속에 있던 진정한 두려움은 심판자 하나님뿐이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은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적들과 두려움과 상대하며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보냈다.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어떻게 행하시는지만 기억하고 누리며 선포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셀라)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시 3:3~6).

오늘 나는 내 인생 속에 두려움을 만났던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셨던 다윗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꼬옥 붙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20210613-1348□-□□_□□□□□ 21. 6. 11. □□ 7:13 Page 14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 하박국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처럼 공동체와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실망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실망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잘 못 견딥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도 일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거부가 아닙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때로 침묵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깨달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을 포함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포함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11절).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바람처럼 사라지게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자신의 힘을 신처럼 여긴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악을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절대로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의인은 반드시 악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있습니다. 악과 더불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악을 반드시 포함하기에 의인은 반드시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바와 정반대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6절).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의로운 질서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바벨론 같이 더 악한 이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와 정반대가 아닙니까?"라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고 사나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원하는 바와 정반대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사납고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피지배 민족을 존속시키는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방향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것이다. 네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네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5절).

하나님의 섭리는 유다 백성들의 수호신처럼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동시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살고 있는 이곳, 이 시대, 우리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 시대 우리 문제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시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심판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속의 역사에는 이 두 사건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속의 역사가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 한 영역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의 신비는 그 줄거리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잘살아 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자부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출생했습니다. 한 개인의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된다는 것을 어떻게 역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개개인의 역사, 좋은 일만이 아니라 불행해 보이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무력이 승리하는 것 같고, 올바르지 않은 통치자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얀마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나라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바꾸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든 섭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모든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역사(history)를 히스 스토리(his story), '그분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하박국 선지자 시대와 비슷하게 거짓과 불의, 싸움과 갈등,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품고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이 불의를 그냥 두십니까?"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섭리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양재		조영은	황지원	백남옥	강민정	윤현식	신현재	김윤경	배경희	박도형	이정석	강윤희	신혜원	문선영	이승희	구혜현	황은아	송연호	박환성	■ J4U		● 어린이		안희민	안광호
		차을자	정수선	양석진	박재형	이예슬	이희문	김홍열	양권석	박정미	호성희	권상하	김시용	문용권	박창국	구희연	한성실	이주혜	이지원	김해람	김연희			이상현	안은선
■ 강남A		■ 강남D		이수복	이승근	이정호	전병제	김희선	최근옥	■ 송파A		김민경	정은주	박경아	최문희	금초롱	홍성희	조민정	오세린	류나경	심하늘	■ 어린이		이희수	이정희
길아라	정현애	강정모	심규혁	장채희	원종화	장선근	이번생	박윤정	이일금	김소은	김길선	김순옥	신창순	신현정	조옥환	김수영	윤선희	조진만	신하식	문주희	박현숙	문서율	문지호	전지호	전 진
김영진	김정원	이미연	허규연	태재영	김해종	조은실	전은숙	노상미	김민주	박진희	최미영	김일홍	강성석	심윤지	홍규연	김양아	김미란	하성수	임석건	박영민	이재학	박주혜	최선주	정구선	정호용
방은희	최경아	이재선	문예인	한소민	이종훈	진종희	권소연	박수희	어은경	손효은	안일심	민성혜	강미영	양영화	권선정	김지혜	정현애	한혜연	손지영	신현지	원정림	신찬영	신현덕	정선우	진선미
백정욱	한용수	조효진	김수진	홍인순	김희정	허 원	장경수	신현범	박준영	안성은	고선미	서동철	안중산	장지희	이진숙	김환히	김혜영			이로은	박수진			홍성민	박성은
신선경	이경화					홍정민	박은신	이경아	정윤선	이내철	이호찬	이유정	장 진			박성훈	정지석								
신창호	전기병	■ 강남E		■ 도곡		황재형	천성윤	이승애	권문숙	이정희	장우현	이은진	정명숙	■ Harmony		박예랑	장지원								
안현경	정현애	김서우	이은정	이상미	한상미			이승응	장서봉	이필립	장원규	조희옥	노균수	유재경	오범규	박정아	성하영								
이성구	허경식	신혜경	서수정			■ 서초A		정나원	정수헌	정연재	서보희	최원준	김찬의	정다혜	박신애	박지혜	이윤정								
이정미	박희숙	조건형	김 창	■ 분당A		김성국	문대홍	황윤정	권문숙	정 희	박태식	허승진	안중산			오성흠	심효무								
이주연	김영수			유신정	고은영	김지영	한경희			지옥현	이호찬			■ 특별한초대		유민지	박선향								
		■ 경기A		유희숙	변호숙	김현수	이재욱	■ 서초C						정수영	조옥환	윤지원	윤선민								
■ 강남B		문광민	김수훈	전경희	윤은희	신경순	남진희	김선영	김미은	■ 송파B		■ 푸른누리		■ Point5		조현준	허준영								
김수영	홍윤정	박나현	송호춘	전우상	마영휘	신진영	금현정	김현지	노주원	김선오	백봉호	김주미	박효정	김예슬	이정은	최한울	안정아								
손경지	강주식	양경희	이상덕	정범석	지영철	안혜성	설 희	박찬형	장지수	박민우	장준용	송효숙	이미금	이영아	우지연	한지혜	이일금								
오일록	김윤식	홍효정	임예진	지수빈	양수경	이지현	윤재아	반채흥	강민균	박재상	강정대	안지현	한병학	이은경	정선주										
윤현미	박선향			최지은	이지현	전상준	김용기	신지은	안미경	이예나	함양분	원재연	임경희	한예라	류현정										
최유미	안영남	■ 과천의왕		최창환	이관섭	조성현	백승찬	조원교	정지연	조미리	이현숙	이예은	왕미나	한혜조	권수정										
		국순자	변진숙			조연희	권인영	황문업	조진호	조순현	백현경			● 대청											
■ 강남C		김성곤	윤여빈	■ 분당B		최종옥	최영란			진현민	배한나	■ Bridge33+		■ 갈렙		■ 허브									
이영란	김현진	마상도	진재완	김이정	이윤영			■ 서초D				김상희	박세이	김윤재	정호진	김신혜	김선숙								
이한결	허정아	박자현	김영숙	김주찬	오동운	■ 서초B		김태환	안철민	■ 양재				■ 여호수아		김은미	안해옥								
조래을	오장원			박선주	강은정	김경진	김민주	도희선	장정순					고 윤	김연선	문예빈	홍혜경								
																박연수	성순영								
																박주선	김하은								
																서민이	윤성주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6월 20일(서빙고 3부 예배, 양재 2부 예배)

수료대상자는 오전 11시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 양재 사랑홀

대상자: 2월 15일~6월 10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 서빙고	김성은	박대순	이수연	정 현
	김효중	박상영	이웅주	조대익
■ 김광하	김희영	박지현	이춘희	차 숙
장로반	남궁현선	오지현	임동진	표민지
고요한	류혜진	유정연	임 면	홍현주
고준혁	민창기	윤세영	임향기	
김대준	박고은이	이미라	장미숙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셈 7층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오향
권용갑 길혜영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앤드류김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웨슬리맥커리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주기철 지대근
최대흥 최성민 최성석 최용준
최혁중 하청훈 한은선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승겸 김한국 신현민 송동주
윤수신 장재원 전병천 최종현
최성규 하성희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구혜미 김바울
김병철 김세현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권수진 노태규 네트라
뉴이엔은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민현식
박근명 박씨마 백승현 싱루아마눕
사가르 윌리엄 이원준 이성광
이승윤 이진이 유승덕 윤준석
윤치연 임선아 장미숙 제인량
최일관 최정현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허루슬란

◈전도사(파트)
권은영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세미 김세환 김수영 김의연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주영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태영 노동준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소망 박영규 박영우
박이호 박은만 박유진 박지수
박정우 박찬양 박태훈 박현식
방성주 빌 케 배명지 백요한
서예찬 서영찬 서영철 송유진
송선애 송우항 송예찬 승소영
신기한 신대종 양주영 여지휘
여현구 오국헌 오성광 오태경
오현교 용상은 우승민 유성하
윤신혁 윤슬기 윤지은 윤태정
윤효정 이경아 이민희 이사무엘
이상욱 이상은 이선영 이세영
이송희 이수호 이신임 이엘렌
이용민 이진기 이진수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현석
이형목 임광명 임노완 임송아
임지성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사라 장요셉 장요한 장지훈
전소리 정상원 정연영 정준혁
정에스더 정연상 정예은 조은광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진선미
진성희 최규종 최은영 최선재
최휘준 카와무라 요시키 한영철 한용태
허정현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의선 강찬석
구재영 권도원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종수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편무옥
하영철 하용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권순형
곽진성 곽희준 권오습 권오혁
권용한 금세종 김경돈 김관식
김광하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민찬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병순 김병옥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용기
김용호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훈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창호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지수 박재두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헌 양상식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석우 윤석주
윤영각 윤현덕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백용
이봉의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우경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응화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한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호림 하성기 하주헌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배영근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지연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균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관수
김철진 김태완 박신웅 송영동
송재호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
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인호 변범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우윤상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택
이정주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건우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승홍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청훈 한현희 코바야
시 메구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김경덕 김현중 남 영
박이훈 서인택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덕수 권우중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상헌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허규회 홍관희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임헌식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좌겸
김진용 김현희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소천

■ 결혼

6월 19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한병익, 이영옥(온누리교회 안수집사, 권사)의 아들
한대환(온누리교회)
황중만, 이순례의 딸 황정희(지명교회)

6월 19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김기태, 이광예의 아들 김현석(온누리교회)
손기태, 홍은심(온누리교회 집사, 권사)의 딸
손지예(온누리교회)

■ 소천

6/4(금) 동대문중랑 임영미 권사 시모상 고 홍정순
6/9(수) 양재 윤종구 안수집사 모친상 고 이준선
6/10(목) 도곡 손금례 성도 부친상 고 손용철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전제품 및 소형 가구, 생필품 후원요청
내용: 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거물품 및 생필품 후원 요청
문의: 이수진 팀장(031-360-182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법률상담 봉사자 모집
내용: 매월 둘째 주 월요일(15시~17시) 어르신 대상
무료법률상담 진행
문의: 고진솔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IT체험존 봉사자 모집
내용: 퍼스널, 그룹형 인지훈련로봇, AI로봇, VR 체험존 활동 보조
문의: 송승현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시니어 크리에이터 오디션
내용: 서초구 5070 대상, 1인 방송 활동가 선발 & 육성, 무료교육 및 유튜버 활동 지원
문의: 김재훈 피디(02-6953-7133)

서초50플러스센터 사.이.다 공모전 개최
내용: 사소하지만 이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15분 영상으로 제출
문의: 선초원PM(070-4304-6913)

재 정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고

온누리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자격: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
서류: 지원서(상담센터 양식 참조),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졸업증명서, 임상경력증명서(면접상담 100시간이상),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비용: 한 학기당 30만 원(총 2학기)
교육: 매주 슈퍼비전, 학기별 교육
문의: 서빙고(02-793-2997, 010-4215-3675, onnuriccc@gmail.com), 양재(02-570-7536, 7537, 010-4684-7536, onnuriyjcc@gmail.com)

서빙고 한마음공동체 피아노반주자 모집
시간: 주일 오전 10:30~오후 1:00
대상: 코드반주가 가능하며 예배팀 경험자
문의: 김재혁(010-3353-9150)

두란노서원 재정부 세무,회계 직원 채용 공고
업무:세무 및 회계 관리
근무: 정규직, 주5일 근무
접수: 6월 30일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1348호 20210613 게시판_온누리신문 21. 6. 11. 오후 6:27 페이지 3

2021년 CGNTV 시청자 모니터단 모집

CGNTV와 동역하며 복음 콘텐츠를 만들어갈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CGNTV 시청자

활동 기간 2021년 7월 ~ 2021년 12월

활동 내용
1. 매주 CGNTV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2. 월간 비대면 정기모임

모집 기간 2021년 5월 23일(주일) ~ 2021년 6월 20일(주일)

결과 발표 2021년 6월 25일(금) CGNTV 웹사이트 및 개별 통보

활동 혜택
1. 임명장 및 수료증 수여
2. 우수 모니터단 감사 선물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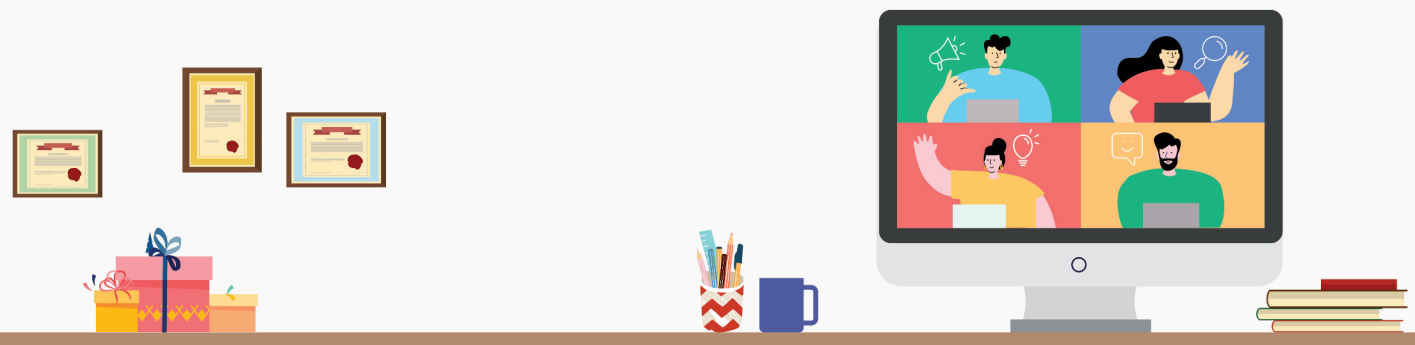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02-3275-9518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안내

STEP 1
지원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CGNTV 웹사이트 다운로드

STEP 2
지원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TV, 유튜브 콘텐츠 각 1편씩
총 2편 작성하기

STEP 3
온라인 접수 및 우편접수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